

□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우리는 왜 건축물이나 시설설비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건축인 특히 설계 감리를 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하고 철저한 확인을 하므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느껴야 할 때인줄 안다.

건축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는 설계, 공사 준공후의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역시 구조적인 설계안전면의 확인 검토와 사용 재료의 선택등은 설계계획 단계이외의 할 일이다. 우리는 가끔 어느 현대식 대형빌딩을 비오는 날 출입구를 들어서면서 또 나오면서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가 있다. 그것도 바닥이 강도높은 화강석 물갈기로서 이는 무용을 하는 바닥이지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바닥재료의 표면이 아님을 새삼 느끼며 보기좋은 것과 기능상 인간의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것은 재료 선택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축법상 재료선택의 규제가 필요함) 그 비싼 재료위에 다시 싸구려 재료인 요철논스립 비닐깔판등을 깔아 놓은것이 代案이었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이런 경우는 욕실의 바닥재료를 미끄러운 재료로 시설한 경우와 같은 예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탄가스 누설방지나, 아파트의 난간설비의 높이, 간격, 난간 중간단의 유무가 아이들의 인명구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건축인들은 생활 주변에서 다시 건축과 안전에 관련된 일들을 찾아 반성하고 다음 설계감리에는 시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선택 유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공사 감리면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 거푸집의 조기제거, 거푸집의 제거 순서 잘못에 따른 것이며 사고의 예방도 될 수 있으나 제거시에는 마구 제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R. C 조의 경우 지주를 그냥 뜬채 축벽이나 기둥의 측면 거푸집을 먼저 제거하여 기둥의 콘크리트 작업이 완벽한가, 안채워진 부분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기둥에 공동(空洞)

이 발견된 것도 모르고 마구 전체적인 철거를 감행한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또한 기초문제로서 설계가정(假定)과 다른 지질 지반의 불확실한 조건의 상황하에서 건축이 진행 되었을 때의 위험부담은 큰것이며 사후 수리와 보완이 어려운것이 기초이므로 기초지질과 기초의 설계과정과의 관계는 반드시 확인하고 실시 되어야 한다는 철칙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도심지내의 지하실 공사 굴착때의 흙막이 공사는 항상 이웃 건물과의 시비의 대상이 되며 공사 진행상 애로가 많은것이 상례이나 최선을 다한 완벽한 흙

목적 시방에 맞게 통일·조화되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 건축사의 임무이며 실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 모든 사고의 원인이 부주의와 성실성의 부족에서

설계도란 설계자가 생각하고 있는것을 설계도에 표현 한것이 아니고 발주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하는 것으로도면이나 시방서의 정보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얼마만큼 시공자에게 전달 될 수 있을까는 현실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다. 말하자면 100%가 60~70%의 설계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안전 관리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최근에는 준공후의 유지관리면의 소홀로 대형사고를 내고 있음을 볼 때 건축인 뿐만아니라 건축물과 관련된 제부대·시설면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설비면의 관련인들에 이르기까지 작자가 맡은 직분과 의무의 성실, 확인 등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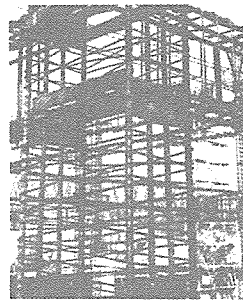
과학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무슨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대로 확실히 반응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이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9할만 수행하고 1할을 소홀히하는 정신자세를 가져서도 안되겠으며 건축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인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건축관계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나는 가끔 모든 사고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고 또한 인간의 성질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 할 때에 인간성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인간성의 사고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좋은태도, 성실도의 함양은 성장시부터 교육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물을 관찰하거나 설계함에 있어 차분히 면밀하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각적인 생각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가는 식은 반드시 헛점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는 몇배의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가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할것이다. 모든일에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 하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자. <\*>

88 새해칼럼

建築과 安全



막이 공사를 함으로 불의의 인명, 선의 재산의 피해를 막는길 일 것이다.

이렇게 볼때 역시 우리 건축사란 많은 현장의 경험과 구조적인 전문지식과 시공 관리면의 주도 면밀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건축물이란 설계에서 완성 단계에까지 규모에 따라 장시간이 걸리기도 함으로 그만큼 시간과 인력과 각 직종의 수다한 사람들이 서로가 각자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므로써 결과가 완벽해질 것이며 건축인 특히 설계 감리자는 이 모든 이질적인 직종, 인력, 재료를 건축